1. Space21 캠퍼스종합개발사업 진행현황

가. 종합체육관

- 1) 가설 휴막이 공사 진행 중 및 세륜기 설치 완료
- 2) 성토부위 다짐 및 토사반입
- 3) 학생회관 후면 보강토 옹벽 기초타설 및 옹벽블록 시공예정
- 평판재하시험 및 지내력 검토 중
- 4) PHC파일 공장제작 중 : 현장반입 및 파일공사

나. 공과대학관

- 1) 공과대학 구성원들의 요구 수용하여 층수가 변경되었음.
- 2) 층수 변경에 따른 변경 입면(안) 총장 승인요청 준비 중[4월 중 실시예정]

다. 외국어대학관

- 1) 외국어대학관 신축 교수연구동 관련 추가의견 접수 : 2015년 4월 2일
- 2) 외국어대학 평면수정 요청사항 도면 작업 중

2. 기타사항

가. 국제캠퍼스 도시계획시설 내 국유지 9개 필지 매입계약 : 2015년 4월 14일

- 인허가관청(용인시) 인허가 조건으로 2012년부터 단계적 매입 진행 중

나. 건설사업단 홈페이지 (지속 업데이트)

- www.s21khu.ac.kr

3. 질의응답

(Q1) 공과대학 구성원들 요청 시기 질의

(A1) 2015년 2월 말 접수한 사항을 대학 대표건축가가 수정작업 중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총장 승인 요청 할 계획임

(Q2) 대학 본관 후면 서천지구 방면 샛길의 외부인 통제하는 안(출입문 설치 등)에 대해 총학생회 논의 결과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

(A2) 기존 사용하던 길을 통제하는 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학내 구성원 중에도 해당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폐쇄하는 안은 반대 민원이 예상됨. 또한, 지역사회에 기여한

다는 대학의 사회적 요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사례를 봤을 때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음. 많은 외부인의 방문으로 대학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 및 대학 본연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고민하겠지만, 대내외적 반발이 심할 것임. 만약 학생회 차원에서 추진할 경우(면학분위기 조성 캠페인, 쓰레기 수거 캠페인 등) 반발을 완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생회 내부의 검토도 요청함

(Q3) 현재 대학 정문에 계단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장애학생은 결국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개선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질의

(A3) 대학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사무처 관리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임. 기술적으로 레벨 1[m]에 대해 경사로 약 12[m]정도가 확보되어야 함. 아울러, 기존 건축물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설치되어야 함

(Q4) 외국어대학 개보수 도면 관련

(A4) 신축에 대한 외국어대학 구성원 의견은 정리된 상황이지만 개보수 부분에 대한 도면은 외국어대학에서 좀 더 논의 후 건설사업단에 4월 말~5월 중순 중에 송부하기로 한 상황임. 외국어대학, 공과대학관, 국제학관 신축건물 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생명과학대학, 외국어대학 개보수 설계는 신축건물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진행할 계획임

(Q5) 생명과학대학 개보수 관련 질의

(A5) 생명과학대학관 및 국제경영대학관 2개 건물을 생명과학대학에서 사용하는 것이 소통결과이며, 현 생명과학대학관 지하층은 모두 학생자치공간으로 배정하기로 함. 지하 공간 구획은 건설사업단에서 전임 생명대 학생회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는 미회신 상태임

(Q6) 설계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 질의

(A6) 종합체육관 등 확정된 사안에 대한 자료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승인받지 않은 내용(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그 파장에 대한 우려로 열람만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정리발언]

차기 회의시는 궁금한 내용에 대해 미리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임. 대학본관 후면 출입통제 문제는 대학본부, 학생회 등 대학구성원들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정문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제는 관리팀과 논의 후 차기 회의시 설명예정

<회의종료>